

'26. 2. 6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테

- 파키스탄 정부, 발루치스탄 무장단체와 접전 사망자 125명
 - 2.1 언론은 파키스탄 정부가 31일 발루치스탄주에서 무장단체의 민간인 및 보안 시설 공격에 대응 소탕하였으며, 이번 공격은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과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이 연합하여 공격해왔다고 보도
 - ※ 하루 전 29일 파키스탄 정부는 선제적 대테러작전으로 무장단체 조직원 41명을 사살하였으며,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정부가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中
- 파키스탄軍, 분리주의 무장단체 조직원 177명 사살
 - 2.3 언론은 파키스탄 軍이 최근 사흘간 발루치스탄해방군(BAL)을 대상으로 소탕 작전을 감행하여 177명을 사살하였으며, 내무부장관은 사살된 이들이 인도의 지원을 받은 테러범이라고 언급
 - ※ BAL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하며, 보안군과 외지(중국)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 테러 中

중 동

- 이란, “유럽연합 회원국 군대 테러단체”...제제 맞대응
 - 2.1 이란은 유럽연합(EU)이 지난달 29일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문제 삼아 이슬람혁명수비대(IRGC)를 테러단체 지정 및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 회원국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고 보도
 - ※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979년 성직자 통치 체제 보호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, 현재 미국('19년), 캐나다('24년)가 테러단체로, 호주('25년)는 테러지원단체로 지정

유럽

↑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으로 미국, 러시아, 시리아, 이집트 등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

- 프랑스,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EU 테러 단체 지정 지지
 - 1.29 프랑스는 “무슬림 형제단을 유럽 테러 조직 목록에 등재하는” 결의안을 채택했으며, 인종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결의안은 이슬람·무슬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보도
 - ※ 2025년 5월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된 ‘프랑스 내 무슬림 형제단과 정치적 이슬람주의’ 보고서에서 입증된 위협을 더 이상 무시 할수 없다고 부언
- 튀르키예, '26년 대테러 활동 강화 발표
 - 1.29 튀르키예 국가안보위원회는 향후 1년간 테러방지작전 강화, 시리아의 영토 통합 지원,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, 이란과 흑해 지역의 긴장 고조 속에서 지역 안전 수호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
 - ※ 이번 테러없는 튀르키예 구상에는 쿠르드 노동자당(PKK)의 무장 해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들도 이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언
- 俄, 청소년 대상 테러 혐의 적용 판결 지속 증가
 - 2.3 언론은 최근 러시아 군사법원이 우크라이나 테러단체의 연락을 받은 後 공격대상 지역을 정찰하고 온라인 정보를 통해 화염병을 준비한 청소년(14세 男)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고 보도
 - ※ 최근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포섭됐다고 판단된 청소년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159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
- 英 담배社, 북한 합작사업을 통한 테러 지원 혐의로 피소
 - 2.2 언론은 미군 군인 등 약 200명이 영국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토바코가,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통해 테러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 개발을 고의로 지원했다며 버지니아주 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
 - ※ 고소인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가 '20년과 '22년에 공격에 사용한 북한산 미사일이 해당 합작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개발된 것이라 주장

역사 속 테러사건

캐나다 퀘벡市 발생 모스크 총기 난사 테러

- '17.1.29. 20시경 캐나다 퀘벡市 소재 모스크를 침입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
 - 범인은 해골 무늬가 그려진 가면과 검은 망토를 걸친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난사 자행
 - 당시는 저녁 예배 시간대로 신도들이 운집해 있어 다수 인명피해 초래
-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용의자인 프랑스제 캐나다인 「알렉산드르 비소네트」(당시 27세)를 체포하고, 1급 살인혐의로 기소
- 조사결과, 同人은 평소 美 「트럼프」대통령을 존경하고 다문화주의 반대 단체를 지지해온 극우성향의 인물로 밝혀졌으며 관련 사건은 최종적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'외로운 늑대'형 테러로 결론
- 「트뤼도」 캐나다 총리는 同 사건을 '비열한 테러 행위'라고 비난하고 "이 같은 非이성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"고 강조
 - '19년 3월 캐나다 법원은 범인에게 최소 4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

테러 상식

< '외로운 늑대(Lone Wolf) 테러' vs '늑대무리(Wolf Pack) 테러' >

■ 외로운 늑대(Lone Wolf)

- (정의) 배후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동을 선동하며 사용 한데서 유래

■ 늑대무리(Wolf Pack)

- (정의) 기동력을 갖춘 소수의 경무장 테러분자들이 자율적 동선으로 이동 하면서 테러를 자행하는 전문테러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소규모 그룹에 독립성을 부여해 자율적이고 기동력 있는 전투수행을 가능하게 했던 독일 잠수함 전술에서 유래